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⑲ 녹원(鹿園, 鹿元, 鹿苑) 스님



▶한줄 요약
녹원 스님은 17세기 중반 영남·호남·경기 지역에서 활약한 조각승으로, 이후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진열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보를 형성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17세기 중반 영호남·경기 불사 이끌어

녹원(鹿園, 鹿元, 鹿苑) 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승일(勝一, 勝日) 스님과 관해(寬海) 스님이 주도한 불상 제작에 참여했던 조각승이다.

초기에는 승일 스님을 보조하며 불상 조성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지현(智玄, 知玄)·혜정(慧定, 惠淨) 스님 등 후배 조각승들과 함께 작업하며 자신만의 조형적 특징을 갖춘 불상을 만들어 갔다.

녹원 스님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44년 음력 1월,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16나한상 등 제작에 승일 스님과 참여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당시 열네 명의 조각승 중 여덟 번째로 기록돼 있어, 1640년대 중반에는 중간급 보조 장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48년 음력 3월부터 6월까지는 관해 스님을 도와 남원 백장암 명부전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제작(현 소재 미상, 조성발원문만 있음)에 참여했는데, 이때 열두 명 중 다섯 번째 기록돼 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원 스님은 1655년 봄부터 약 두 달 동안은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수화승으로 제작했다. 이 작업에는 지현·혜정·인종(印宗) 스님 등이 함께했으며, 후배와 제자인 지현 스님과 혜정 스님은 1660~1680년대 남부 지역에서 수화승으로 활발히 활동한 조각승들이기도 하다.

이후 1659년 음력 5월에는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수화승으로 세 명의 보조화승과 함께 제작했다. 당시 기록에서 녹원 스님이 '대화원(大畵員)'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당대 불사(佛事)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664년에는 고흥 능가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현 소재 미상, 목조지장보살좌상만 서울 지장암 봉안, 시 유형문화유산)을 후배·제자 16명과 함께 제작했고, 1669년에 안성 청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도운(道云, 道雲)·성심(性諶, 性沈) 스님 등과 조성한 사실이 최근 복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1670년 음력 8월에는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수화승으로 인종·도윤·성심 스님 등과 제작했다. 이어 1673년 음력 2월부터 7월까지는 수화승 자수 스님을 도와 창원 불모산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현재 합천 해인사 봉안)을 부화승으로 제작했다.

현재 확인되는 녹원 스님의 활동 기간은 1644년부터 1673년까지로 약 30년이다. 기록과 현존 작품을 보면, 스님은 1610년 전후에 태어나 1620년대에 수련기를 거쳤으며, 1630~1640년대에는 승일·관해 스님의 불사에서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55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안성 청룡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69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70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승일·관해 스님 계보 잇고 30여 년간 활동
1650년대부터 수화승, 지현 스님 등과 협업
창원 성주사·기장 장안사 등에 불상 조성

1650년대부터는 수화승으로 독립적인 조각승 집단을 이끌며 활동했고, 1670년대 전반까지 활약했다.

녹원 스님은 영남과 호남, 경기 지역의 대웅전이나 명부전 등 주요 법당에 불상을 제작했다. 이 가운데 수화승으로 주도한 작업은 창원 성주사, 기장 장안사, 고흥 능가사, 안성 청룡사, 양주 청련사 등 여러 사찰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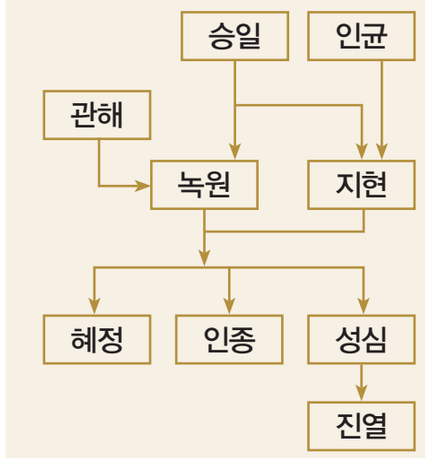
녹원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승일(1622~1670, 이하 활동 연대)→녹원(1644~1673)·지현(1648~1689)→혜정(1650~1674)·인종(1655~1679)·성심(1669~1695)→진열(震悅, 1688~1722)로 이어진다.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내부에 남아 있는 묵서(墨書)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1670년 음력 8월에 녹원·인종·도운·유경·사운·성심 스님 등이 함께 조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78㎝의 중형 불상으로, 머리 크기가 신체에 비해 큰 1:0.36의 비례를 보인다. 머리에 뾰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표현됐으며, 육계 아래에는 반원형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는 낮은 원통형 정상계주(頂上髻珠)가 있다.

여래상은 두꺼운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안쪽 자락이 짧게 늘어져 V자형의 끝단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대의자락이 세 가닥으로 접혀 늘어진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갔다.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복부 중앙에서 바닥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녹원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이와 같은 하반신 중앙에 늘어진 대의자락의 처리는 17세기 후반 조각승 희장 스님이 만든 기년명 불상에서 나타나는 옷 주름보다 폭이 약간 좁은 편이다. 왼쪽 무릎에는 소맷자락이 나뭇잎 형태로 크게 늘어져 있다. 왼쪽 측면 대의자락은 동일한 너비로 늘어져 앞뒤로 'ㅅ'자를 그리며 펼쳐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리고 대각선으로 접혀 있다.

녹원 스님이 주도해 제작한 불상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잘 보여 준다. 현재 녹원이 제작하고 연대를 밝힌 불상은 모두 5건 30점이 현존하며, 1650년대와 1670년대 작품 사이에는 형태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650년대 불상은 얼굴이 가늘고 길어, 폭에 비해 높이가 더 큰 직사각형 형태다. 반면 1670년대 불상은 얼굴의 폭과 높이가 거의 비슷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을 하고 있다. 또한 오른쪽에 어깨에 걸친 대의 끝부분이 1650년대 불상에서는 아래로 길게 내려오지만, 1670년대 불상에서는 쇄골 정도까지만 짧게 내려와 차이를 보인다.

하반신의 대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난다. 1650년대 불상에서는 중앙의 대의자락이 한 가닥의 주름이 좌우로 퍼지듯 표현되지만, 1670년대 불상에서는 주름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다. 승각기는 1650년대에는 대각선으로 접힌 형태와 연판형(연꽃무늬처럼 펼쳐진 형태)이 함께 나타나지만, 1660~1670년대 불상에서는 대각선으로 접힌 형태만 제작됐다. 또한 제작 시기가 후대로 갈수록 하반신 무릎의 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무릎 양끝의 형태도 더욱 각져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